

<2012년 5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대 하늘의 사명자가 오면, 사탄은 기다리는 자들을 혼동케 하여 못 맞게 한다.
2. 그곳에 발판이 없으면 시대 하늘의 사명자가 와서 역사를 펴지 못한다. 나사렛 예수님 때도 그같이 됐다.
3. 사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못 하게 하여, 오는 자도 기대가 어긋나게 하고 맞는 자도 못 맞고 기대가 어긋나게 했다. 사탄이 이같이 해 왔고, 지금도 이같이 한다.
4. 성자의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사탄은 야비한 짓을 하며 메시아를 못 맞게 작전을 폈다.
5. 성자 주님은 육신을 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비하게 하시고, 주를 알고 맞게 하셨다.
6. 개인에게도 늘 성자 주님이 역사해 오셨는데, 사탄은 주님이 오셔도 못 맞도록 우리를 방해하여 예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평탄케 하지 못하게 한다. 고로 성자 주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게 한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을 맞도록 예비하여라.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가 만나고 가신다.
7. 자기 마음에 맞게 해 주지 않으면 불신하는 생각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8. 가롯 유다는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 그 사랑을 배척했다.

9. 선생도 따르는 자들에게 해 줄 것을 다 해 주었다. 그런데 자기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마음에 맞게 해 주지 않았다고 서운하다 한다. 구원하는 말씀을 줘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나오게 해 주었으면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 한 것이고, 해 줄 것을 다 해 준 것이다.

10. 지구촌에서 구원받고 오는 수많은 자들의 심리를 그때그때 다 맞춰 주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자 주님과 사명자가 그때그때 자기 마음에 맞게 맞춰 주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안 해 주면, 서운함을 타고 마음이 변질되어 외면한다. 그러다가 사망의 무서운 사탄이 침범하여 사망 고통의 세계로 간다.

11. 성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곧 보낸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12. 성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보낸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 선생도 그러하다.

13.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도록 법을 정하셨다. 우리가 법을 행하니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다.

14. 컴퓨터가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면 찾는 것이 나오듯이, ‘기도’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치는 격과 같다.

15. 기도하면 묶였던 것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격과 같다.

16. 기도하면 왜 이루어지는지 인식하여라. 기도는 마치 애인과 약속한 장소에 가면 애인을 만나는 격이다. 애인과 약속한 장소에 안 가면 애인을 못 만난다. 약속 장소로 가듯이 기도하여라. 진정한 기도다.

17. 꿈도 하나의 계시로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제대로 해석하면 감탄한다.

18. 사람들은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한다. 처음부터 잘되겠느냐.
19. 새 새끼가 처음부터 나느냐. 처음에는 걷다가 서서히 날갯죽지가 나서 때가 되어야 난다.
20. 걷다가, 뛰다가, 난다.
21. 처음에도 나중에도 비약은 없다. 한 번에 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다만 더 행했기에 보다 비약이 일어났을 뿐이다.
22. 반복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조금씩 고쳐 가면, 자신 없는 것도 결국 잘하게 된다. 다만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23. 천국도 매일 조금씩 차원을 높이면서 이론다. 6000년 구원역사가 점점 차원을 높이며 흘러오다가, 결국 이 시대 마지막 역사 때 천국의 근본의 말씀이 나왔다.
24. 차원을 높이면서 행해야 제대로 하게 된다.
25.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에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생각나 더 차원 높여 할 수 있게 된다.
26. 영의 세계, 곧 신앙 세계는 한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여러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조직해 놓았다. 고로 한 번에 가려 해도 갈 수가 없다. 계속 차원을 높이면서 가야 갈 수 있다.
27. 성격이 급한 자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한 번에 높이 오르려 한다.
28. 월명동 감람산에 오를 때도 몇 차원을 올라야 감람산 팔각정에 간다.

29. 기도도, 행실도, 삶도, 신앙도, 사랑도 다 그와 같다.